

펫푸드(pet food)에 대하여



현재 국내에서는 대부분 개와 고양이 보호자들이 상업 펫푸드(사료)를 급여하고 있습니다. 펫푸드 시장은 반려동물 전체 시장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반려동물 시장 규모를 약 2조 정도를 예상한다면 이중 펫푸드가 차지하는 시장 규모는 약 6천억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규모가 큰 시장이다 보니 많은 회사들이 펫푸드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미국의 경우 2010년 기준 펫푸드를 생산하는 공장 숫자만 해도 175개에 달합니다.

이렇게 많은 종류의 펫푸드는 주로 동물병원, 펫샵, 대형매장, 슈퍼마켓 그리고 인터넷 등의 경로를 통하여 소비자들에게 유통됩니다.

그럼 이렇게 많은 다양한 펫푸드를 어떻게 분류하고 평가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점이 펫푸드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펫푸드는 크게 4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건식 펫푸드(Dry Pet food)**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됩니다. 건식 펫푸드는 수분함량이 10% 내외로 급여와 보관이 편리한 반면 기호성이 약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건식 펫푸드는 치과 위생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수분함량이 적어 하루 요로기 질환의 재발에는 가장 취약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고양이의 경우 일 년 이내 특발성 방광염(FIC)의 재발률이 건식 펫푸드를 급여한 경우 약 40%, 습식 펫푸드를 급여한 경우 약 10%로 나온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반습식 펫푸드(Semi-Moist Pet food)**로 수분함량이 15~35%이며 건식보다 기호성이 높은 장점이 있습니다. 수분함량이 많은 경우 곰팡이 발생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펫푸드 회사에서는 반습식 펫푸드를 만들 때 가끔 당류나 콘시럽 등을 다량으로 첨가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당류를 많이 첨가하는 경우 당뇨 환자들에게서 조심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펫푸드 회사에 당류나 콘시럽의 첨가가 다량으로 있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는 **습식 펫푸드(Moist Pet food)**로 수분 함량이 약 75%에 달하며 이로 인해 기호성이 높은 장점이 있습니다. 습식 펫푸드는 그 자체로 수분 섭취량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특히 하루 요로기 질환이 있는 경우 많이 추천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탄수화물의 함량이 적어 당뇨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습식 펫푸드는 개봉이 되면 반드시 냉장 보관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식에 비해 영양학적으로 균형이 잘 잡혀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주식으로 급여할 것인지 간식으로 급여해야 할 것인지 평가해야 하고 불확실할 경우 회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업 펫푸드에는 **생식(Raw food)**이 있습니다. 생식은 최근 보호자들이 집에서 직접 재료를 구입 후 다듬어서 동물에게 주는 것이 무척 번거로운 것임을 알고 손쉽게 구매해서 먹이라는 취지에서 상업화된 것을 말합니다. 주로 냉동된 형태 또는 동결 건조된 형태로 유통이 되며 반드시 냉동보관 하여야 합니다. 단백질원의 경우 열처리를 할수록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생식의 경우 열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흡수율이 높은 장점이 있는 반면 미생물과 기생충 증식이 우려가 되므로 현재 공중 보건학적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FDA와 동물병원 협회인 AAHA에서는 주로 공중보건학적인 이유와 영양불균형에 대한 우려로 생식을 공식적으로 추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조: www.fda.gov/AboutFDA/Transparency/Basics/ucm206814.htm, www.aaha.org/professional/resources/raw_protein_diet.aspx#gsc.tab=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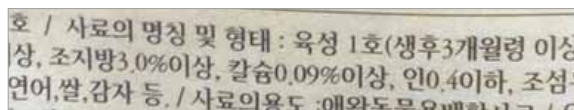
펫푸드를 평가하기 위해선 4가지 요소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4가지가 바로 기호성, 흡수율, 영양 균형, 원료의 안전성입니다.

기호성의 경우 특정 식품에 대한 동물이 선호하는 정도를 뜻합니다. 먹지 않으면 건강에 큰 위해를 가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습식 펫푸드가 건식에 비해 기호성이 높습니다. 개와 고양이가 가장 선호하는 음식의 온도는 약 40℃입니다. 개와 고양이의 경우 식품의 기호성을 평가하는데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감각은 후각입니다. 즉, 음식에서 풍겨 나오는 냄새가 기호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입니다. 기타 음식의 재질, 알갱이의 크기, 음식의 맛도 기호성에 영향을 끼칩니다. 개와 고양이는 어려서 다양한 음식을 접한 경우에 나중에 커서도 다양한 음식을 잘 받아들이는 반면 꾸준히 같은 종류의 음식을 먹는 경우 나중에 다른 음식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차후 식이요법의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 결국 내과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처방식을 급여하게 될 경우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어렸을 때 다양한 음식을 접한 동물이 나중에 식이요법을 적용하게 될 경우 처방식을 좀 더 잘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흡수율은 어떤 음식을 섭취하고 체내로 흡수되는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흡수율이 떨어지는 음식을 먹었을 때 배출되는 변량도 많아지게 됩니다. 영양소의 경우 지방의 흡수율은 약 90% 정도이며 단백질은 60~99%로 원료에 따라 다양하고 탄수화물의 경우는 잘 익히지 않는다면 흡수율이 매우 떨어지게 됩니다. 탄수화물의 일종인 식이섬유의 경우는 흡수가 거의 되지 않고 대부분 분변으로 배출되게 됩니다. 그리고 식이섬유의 양이 많으면 다른 미네랄과 비타민 등의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하므로 임신, 수유, 성장기의 동물에는 식이섬유의 섭취량을 가급적 줄이는 것이 추천됩니다. 단백질의 경우 열처리를 할수록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생식의 경우 단백질을 열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흡수율이 더 높아 변 냄새가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변 냄새는 주로 황을 함유한 아미노산으로 인해 유발됩니다.). 주로 동물성 단백질이 흡수율이 높고 식물성 단백질의 경우 흡수율이 낮습니다. 가수분해한 단백질의 경우 인위적으로 소화 효소 등을 첨가하여 단백질을 분해하였으므로 흡수율이 높습니다.



영양소 균형은 매우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쉽게 간과되고 있는 요소입니다. 대부분의 영양소는 적게 섭취되면 결핍증, 너무 많이 섭취되게 되면 중독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적당한” 양의 영양소가 꾸준히 섭취되어야 하는데 개와 고양이에서 이 “적당한” 양을 규정한 기관으로 대표적인 것이 NRC(National Research Council)와 AAFCO(Association of American Feed Control Officials)입니다. 예를 들어 AAFCO 기준에 맞게 영양소를 갖추고 있는 식품을 꾸준히 먹게 되면 건강한 경우 영양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AAFCO 기준에 맞지 않은 대표적인 펫푸드의 형태는 처방식입니다. 처방식의 경우 특정 질병의 예방과 치료, 또는 그 질병이 더 이상 진행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용도로 어떤 영양소의 함량을 늘리거나 줄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CKD(Chronic Kidney Disease)에서 인(Phosphorus)이 제한된 식품을 먹어야하는데 현재 유통되는 처방식에서의 인의 제한 정도는 정상인 개와 고양이에서는 결핍증을 유발할 수 있는 함량입니다. 영양소에는 필수 영양소와 비필수 영양소가 있습니다. 단백질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있고 지방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필수 지방산인 오메가 3와 6 지방산이 섭취되어야 합니다. 미네랄과 비타민, 물도 모두 필수 영양소로 분류하고 있고 탄수화물의 경우는 비필수 영양소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호성과 흡수율의 경우는 먹여보고 쉽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양균형의 경우는 그 음식이 균형이 잡혔는지 아닌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상업용 펫푸드 포장지에는 사용 원료와 일부 영양소를 표기하게 되어 있는데 국내의 경우 펫푸드를 판매하기 위해선 6가지 영양소의 함량을 포장지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이들 영양소는 조단백, 조지방, 조회분(미네랄), 조섬유, 칼슘(Calcium) 그리고 인(Phosphorus)입니다. AAFCO에서는 2014년 각종 영양소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내놓았는데 예를 들어 성견용 펫푸드의 경우 단백질은 건물(수분을 제외한) 기준으로 18% 이상, 지방은 5.5% 이상, 칼슘은 0.5%~1.8%, 인의 경우는 0.4%~1.6%를 함유하도록 추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칼슘과 인의 비율은 1:1~2:1이 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이러한 권장 기준이 개와 고양이용 펫푸드에는 없는 사항이므로 일부 펫푸드를 보면 칼슘의 함량이 굉장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마트나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예시 1]. 현재 개와 고양이는 가족의 일부로 여겨지고 있고 이들이 건강하고 오래 살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개와 고양이용 펫푸드도 영양소 함량 기준에 대한 제시가 시급히 도입되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펫푸드가 유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시 1

원료의 안전성은 펫푸드에 몸에 해로울 수 있는 것이 들어있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인 멜라민 사태로 인해 더욱더 부각이 되었고 급기야 인터넷에서는 “사료의 등급”이라는 개념이 생겨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멜라민 사태는 약 10년 전 중국의 어떤 단백질 원료 납품 업체에서 조단백 수치를 높이기 위해 한 분자당 질소량이 많은 멜라민을 인위적으로 섞은 원료를 납품하면서 문제가 되었고 이로 인해 수많은 개와 고양이가 신부전증의 문제로 고통 받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단백질의 약 16%는 질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소량에 6.25를 곱하면 대략적인 단백질 수치를 역산할 수 있는데 이를 조단백이라 명명합니다. 이런 특징을 이용하여 중국의 업체들은 분자당 질소량이 많은 멜라민을 섞음으로써 단백질량이 마치 많은 것처럼 속여 원료를 고가에 판매하였습니다. 멜라민은 적은 양에서 자체로는 독성이 없으나 시아누르산(Cyanuric acid)과 결합할 때에는 신장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소비자들은 개와 고양이에게 좀 더 안전한 음식을 제공하고자 소위 “사료의 등급”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내었고, 여러 펫푸드 회사에서 제공하는 제품들을 나름대로 분석하여 브랜드별로 등급을 매긴 내용이 인터넷을 통해 급격히 확산되었습니다. 이는 개와 고양이를 대하는 태도가 과거와 달리 좀 더 가족 같은 존재로 인식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실로 무척 고무적인 일입니다. 다만 이렇게 등급을 매기기 위해 원료의 질적인 면과 안전성에 집중하였으므로 “사료의 등급”이라는 용어보다는 “원료의 등급”이라는 표현이 더 알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원료와 더불어 영양소 측면도 같이 분석하여 등급을 매겼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후 “사료의 등급”에 쓰인 홀리스틱, 슈퍼 프리미엄 등의 용어를 일부 회사에서는 마케팅에 사용하기도 하였는데 사실 이들 용어에 대해 공식적으로 정의 내린 기관도 없고 법적 규제도 없으므로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료의 측면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말하는 원료는 유기농(Organic) 원료입니다. 유기농 식물성 원료는 살충제, 비료, 보존을 위한 방사선 처리, GMO 등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동물성 원료는 유기농 식물 원료를 급여하여 사육해야 하고 항생제, 성장 촉진제 등을 쓰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현재 대부분의 유기농 인증 업체들은 주로 사람 음식을 인증해 주고 있고 펫푸드에 대한 규제가 불확실한 면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USDA에서도 자신들이 지정한 여러 인증 업체들을 통해 펫푸드 원료와 생산시설을 인증해 주고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펫푸드에 대해 “USDA 인증 번호가 있는 경우 유기농 원료를 사용한 것이 진실할 수 있으나 보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도 체내에 유해할 수 있는 것들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측면을 보았을 때 유기농 원료를 사용한 제품이 그렇지 않은 제품보다는 원료의 안전성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더 우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펫푸드의 종류와 평가 기준에 대해 기술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펫푸드를 평가하기 위해선 기호성, 흡수율, 영양 균형, 원료의 안전성 등 종합적인 기준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며 어느 한 부분이 좋거나 나쁘다고 해서 전체를 평가하는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펫푸드 생산 업체에서도 보다 윤리적으로 원료를 사용하여야 하고 영양 균형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국가에서는 펫푸드에 대한 기준, 특히 영양 균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펫푸드 생산 업체로 하여금 영양 균형이 깨지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업 생식에 있어서의 가능한 공중 보건학적 문제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문제가 있다면 이를 개선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펫푸드와 관련된 보다 실질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rain Free

최근 전 세계적으로 많은 회사들이 이 용어를 마케팅에 활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Grain Free 원료를 사용하는 것이 그 제품의 전체적인 품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보호자의 요구에 회사가 수동적으로 따라 맞춰간 대표적인 예로 주로 인터넷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과거 개와 고양이의 선조들은 탄수화물을 섭취하지 않았으므로 탄수화물을 먹이지 않는 것이 좋다는 명제에서 출발한 개념입니다. 또한 Grain Free 원료를 사용하면 알레르기를 일으킬 확률이 낮다는 면과 탄수화물은 소화/흡수가 잘 되지 않는다는 내용들이 Grain Free라는 용어를 탄생시켰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위에 기술된 내용들이 Grain Free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개와 고양이 선조들은 초식동물의 장을 통해 식이섬유를 섭취하였고 펫푸드 회사에서 이론적으로 탄수화물을 줄인다면 상대적으로 단백질과 지방을 늘려야 하는데 이로 인해 고지방

식으로 인한 문제(고지혈증/췌장염)가 우려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Grain Free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탄수화물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Grain Free 제품들을 보면 탄수화물 원료로 밀, 쌀, 옥수수 등을 쓰는 대신에 콩, 감자 등을 쓰고 있고 이는 Grain Free라는 용어가 Carbohydrate Free가 아닌 Gluten Free로 인식됩니다. Grain Free는 탄수화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에서는 Gluten에 대한 알레르기를 가진 경우 섭취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배려로 제품에 “Gluten Free”라는 라벨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개와 고양이에서는 gluten이 알레르기를 유발할 확률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닭고기 등과 비교하여 무척 낮으므로 알레르기와의 관련성이 매우 적습니다. 게다가 현대의 개와 고양이는 탄수화물(전분)을 잘 익히는 경우 100% 흡수를 하므로 탄수화물이 소화/흡수가 잘 되지 않는다는 말도 익힌 조건이라면 틀린 말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Gra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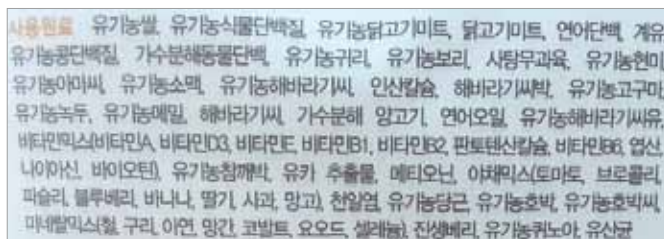
Free 제품은 좋은 제품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반대로 “Grain Free 제품은 나쁘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만일 gluten에 대한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이를 관리하기 위해 알레르기용 처방식뿐만 아니라 Grain Free 제품 급여가 가능하겠습니다.

펫푸드의 보관

펫푸드의 보관은 그 펫푸드가 가진 형태에 따라 다소 달라집니다. 건식 펫푸드의 경우는 개봉하지 않은 경우에 쥐와 벌레가 없는 선선한 곳에 보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런데 한번 개봉을 하게 되면 필수 지방산의 산패를 최소화하는 것이 보관의 핵심입니다. 필수 지방산은 오메가 3와 6 지방산으로 공기 중의 산소와 만나게 되면 과산화물인 peroxide를 형성하게 되어 기준치 이상의 peroxide를 형성할 경우 체내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봉 후에는 되도록 산소와 만나지 않도록 밀봉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한번 개봉하게 되면 4~6주 이내에는 모두 급여하도록 합니다. 즉, 몸무게 3kg짜리 고양이에겐 10kg짜리 펫푸드를 몇 개월간 먹이는 것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펫푸드 알갱이를 밥그릇에 놓고 상온에 둘 경우 하루 이상을 넘기지 않도록 하고 하루가 넘었는데도 알갱이가 남아 있으면 버리도록 합니다. 이외 온도가 높을수록 산화반응 속도가 커지므로 펫푸드를 되도록 서늘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빛, 특히 자외선에 의해서도 산화가 촉진되므로 빛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투명 포장으로 된 간식류에서 응용할 수 있는데 건식의 원료가 오메가 지방산을 함유하면서 내용물을 보여 주기 위해 포장지를 투명하게 처리했을 경우 빛을 받지 않도록 진열하는 것도 산패를 줄이기 위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습도가 높은 곳에서도 산패가 촉진되므로 개봉 후 건조한 곳에 보관하도록 해야 합니다. 습식 펫푸드의 경우는 수분함량이 많아 미생물과 곰팡이가 형성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개봉 후 바로 모두 먹이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냉장 보관하되 되도록 3일 이내에 모두 급여해야 합니다. 동물이 먹도록 상온에 둘 경우 3~4시간이 지나면 버리도록 합니다.

라벨 읽기

상업적으로 판매되는 펫푸드를 살펴보면 건식 펫푸드의 경우 앞면은 브랜드와 펫푸드 이름, 중량, 여러 마케팅 용어들이 있고 뒷면은 주로 원료, 등록관련 사항, 제조 및 유통 업체, 특징, 급여량 등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만 살펴보면 우선 원료의 경우 중량 순으로 나열되어야 합니다. 즉 아래 예시에서 보게 되면 중량을 기준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 원료는 쌀이고 다음은 식물단백질, 닭고기미트 등의 순으로 나열됩니다. 단백질의 경우 단일보다는 여러 종류의 단백질원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 오메가 3와 6 지방산의 원료를 넣어 필수 지방산이 확보된 펫푸드가 더 선호됩니다. 오메가 6 지방산의 원료로 주로 사용되는 것들은 홍화씨유, 보라지유, 옥수수유, 면실유, 콩기름, 참기름, 해바라기씨유, 카놀라유 등이며 오메가 3 지방산의 주 원료로는 어유(fish oil), 아마씨유(Flaxseed oil)가 대표적입니다. 이들 오메가 지방산은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면역 기전의 항상성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되도록 첨가된 펫푸드를 급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시 2

외국산 펫푸드의 경우 표기된 사항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원료를 사용하였는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Chicken을 표기하였다면 이는 말리거나 지방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형태의 닭고기로 수분을 함유하였기에 중량이 많이 나가 주로 원료 표기 시 앞에 배치되게 되며 뼈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Chicken meat로 표시되었다면 뼈를 포함하지 않은 살 부위를 원료로 사용한 것입니다. Chicken meal이라고 표시되었다면 이는 살 또는 뼈를 포함한 살을 열처리하여 렌더

링한 것으로 수분과 지방을 거의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단백질과 인(phosphorus)의 함량이 많습니다. fish meal의 경우 주로 뼈를 포함한 물고기 살을 열처리하여 렌더링한 것으로 에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오메가 3(EPA/DHA)의 공급원이 될 수 없습니다. 단순히 fish라고 표현되어 있다면 살코기와 기름, 뼈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오메가 3 지방산을 공급하는 원료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6대 영양소라고 하여 조단백, 조지방, 조회분, 조섬유, 칼슘, 인을 등록 사항으로 표기하게 되어있는데 여기서 조회분은 주로 미네랄을 뜻하므로 조회분 함량이 너무 많은 경우 주로 뼈가 포함된 원료를 많이 사용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으며 칼슘과 인의 경우 앞서 언급된 것처럼 그 함량이 적정량을 갖고 있는지, 그 비율이 1:1~2:1 수준을 유지하는 지 살펴봐야 합니다. 펫푸드 뒷면의 급여량은 중성화 수치를 하지 않은 성견/성묘 기준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급여량이 틀리게 표기되는 경우도 있어 제대로 계산되어 표기되었는지 우선 체크해야 합니다. 또한 중성화 수치를 하였거나 노령견의 경우는 표기된 급여량의 80% 정도만 급여하도록 합니다.

처방식에 대하여

현재 동물의 질병 치료 또는 특정 질병의 진행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식이요법을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 회사에서 이를 목적으로 상업화된 펫푸드를 만들어 주로 동물병원을 통해 유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식이요법을 위한 펫푸드를 prescription diet 또는 therapeutic diet라고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처방식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처방식은 주로 특정 영양소의 증감을 통해 질병을 관리하도록 하는 개념으로 예를 들어 신부전(CKD)이 있는 환자에게 인(phosphorus)을 감소시키거나 심부전 환자의 식이요법을 위해 나트륨을 감소시킨 포물라가 대표적입니다. 비만 치료를 위해 단백질과 미네랄을 상대적으로 증가시킨 것도 또 다른 예로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또는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추가하여 질병 관리를 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글루코사민+콘드로이틴의 원료를 추가하여 관절 질환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포물라가 그것입니다. 알레르기 질환의 경우 기존에 먹지 않았던 단백질 원료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는 가수분해하여 면역 세포가 반응하는 정도를 줄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알레르기의 원인이 펫푸드에 첨가하는 chemical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chemical의 첨가를 배제한 처방식이 국내에 런칭되기도 하였습니다. 즉, 처방식은 어떤 약물효과를 갖는 특정 물질을 첨가하는 것이 아니라 영양소의 조절을 통해 질병 관리를 유도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처방식은 치료에 사용되더라도 불구하고 의약품처럼 직접 실험 데이터를 제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주로 특정 영양소의 증감을 통해 나온 논문 데이터들을 취합하여 포물라를 짜서 생산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외국이든 우리나라든 법적으로 인증절차를 거치는 것도 아니고 판매 장소가 동물병원에 국한시키지도 않았습니다. 문제는 정상 동물이 처방식을 먹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인데 예를 들어 인(phosphorus)의 함량을 매우 줄인 Renal Diet(신부전에 급여하는 처방식)를 정상 동물에 급여할 경우 저인산혈증(hypophosphatemia)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방식은 일반 펫푸드와 달리 유통 장소가 동물병원에 국한되어야 하고 등록/허가에 대한 부분도 좀 더 까다로운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현재 펫푸드와 관련된 내용들을 일부 다루어 보았습니다. 펫푸드는 동물의 수명 연장과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아무쪼록 자신이 키우는 반려동물에 맞는 음식을 잘 선택해서 급여하여 오래오래 더불어 건강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